



공동체 소식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하느님, 성가정을 통하여 참된 삶의 모범을 보여 주시니, 저희가 성가정의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느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12월 기도지향

- 정준구 파비아노, 박해정 카타리나 가정
- 고영방 스테파노, 김명은 안젤라 가정

성탄 및 송년인사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요한1,16).”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온 누리와 우리 모든 가정에 한 줄기 빛으로 비추어 주길 기도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하느님의 섭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밝아 오는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사랑합니다!

성탄맞이 꽃 봉헌

김정자 수산나, 양정희 모니카, 유경애 아네스, 김인자 글라라, 배복선 안나, 김말자 세실리아, 최선윤 마리아, 한춘희 라파엘라, 백문주 엘리사벳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새해 1월 1일(목)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오전 11시 미사와 평협에서 마련한 떡국잔치가 있습니다. 밝아오는 새해를 공동체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송년미사는 없고, 12/30(화) 오후 7:30분 미사는 그대로 봉헌합니다.

구역회의

- 일시 : 12/28(일) 오후 1시
- 장소 : 회관

기타

- 성탄 구유예물은 과테말라 San Miguel Escobar 본당에 송금됩니다. 1/4(일)까지 봉헌받습니다.
- 성탄대축일 전례에 봉사해 주신 전례부, 성가대, 복사단에 두루 감사드립니다.
- 1월, 예수성심미사와 성모신심미사는 없습니다.
- 본당 달력과 공동체 주소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당 운영을 위해 교무금과 기타 도네이션으로 도움을 주신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고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주임신부 합장.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114	217	153/180	113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정수한 베드로 정병훈 보니파시오	문호진 안토니오 고평원 프란치스코
차주	정병훈 보니파시오 문석찬 요셉	정준구 파비아노 박해정 카타리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 아네스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차주	김주연 세실리아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김시연, 신혜경, 김말자
차주	백문주, 최은미, 박옥희

헌금 봉사자

금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2/21	95명	320불	1,450불
정연숙, 배갑원, 김현동, 정지현, 김대성(총 5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의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이 나자렛의 성가정을 본받고자 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각 가정이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복돋우는 가운데,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고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배우는 ‘사랑의 학교’가 되기를 노력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위기와 시련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기도합니다.

그림묵상

성가정

남편과 아내, 그리고 사랑의 결실로 주신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은 창조주 하느님의 품위에 참여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느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달아 큰 애정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버팀목이고 큰 보화인 신앙을 키우도록 도와주고, 자녀들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소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동반해야 합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서 : 집회3,2-6.12-14<또는 창세15,1-6;21,1-3> <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

화 답 송 :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이는 모두 복되도다

○ 복되여라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 도를 닦는 자는

수고의 열매를 먹고 살리니 너는 복되고 모든 일이 잘 되리라. ◎

○ 너의 집 안방에는 네 아내가 마치도 열매 푸진 포도나무인 듯

너의 상 둘레에는 네 자식들이 마치도 올리브의 햇순들 같도다. ◎

○ 옳거니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렇듯이 복을 받으리로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내리시어 한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하기를 바라노라. ◎

제 2 독서 : 콜로3,12-21<또는 히브11,8.11-12.17-19>

<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생활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 음 : 루카 2,22-40<또는 2,22.39-40> < 아기는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해졌다. >

쉐 마

“희망과 평화의 여인, 어머니”



어머니 품 안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는 아기의 모습, 열심히 일한 후 잠시 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골 농부를 상상하면 ‘평화’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오늘은 세계 평화의 날이자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상상해보니 세상은 그렇게 평화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생각해봅니다.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 상태인 세월호 참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는지요? 분노와 허탈 그리고 슬픔은 언제 내려놓을 수 있을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저는 남성우월주의나 페미니즘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가 3명의 여성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 같아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그중 한 분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가 우리를 위해 봉사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해 대통령으로 선출했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거대한 세월호에 탑승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박현정 서울시장 대표 사건도 제게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대학에서 교육학·사회학 석박사 과정을 이수한, 우리 사회가 낸 지성인이었으며 기업·국가·사회가 인정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너무나 폭력적이고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보며 ‘보편’이라는 근본적인 가치의 기준점을 잃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른바 ‘대한항공’ 사건 전체의 흐름에서도 거대하고 강력한 장벽을 보게 됩니다. 물질에 의해 차단된 장벽이 아니라 ‘존재의 장벽’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태어난 이들의 눈에 비친 ‘평범한 사람’들은 3차원의 존재가 아닌 2차원적인 존재인 것 같아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정말이지 솟아오는 분노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희망과 평화의 여인들, 어머니들을 생각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를 통해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과 마음을 보았습니다. 러시아 작가 막심 고리키의 소설 「어머니」에 등장하는 ‘닐로브나’를 통해 아픔을 치유하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문맹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자식에게는 무시를 당하던 차르 시대의 전형적인 시골 여인이 자식, 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사회변혁을 꿈꾸는 모든 이의 어머니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허무한 인생을 선택한 뜻을 생각해봅니다. 자식도 남편도 없이 가난한 과부인 시어머니를 따라 고통의 삶을 선택한 뜻은 “오직 죽음만이 저와 어머니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룻 1,17)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깊은 신뢰와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성모님을 생각해봅니다. 생명 포기를 결심하면서까지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은(루카 1,34-38) 하느님께 자신의 온 삶을 봉헌하는 신앙인의 근본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소년 시절(루카 2,41-52)을 보며 가정 교육에 대한 성모님의 열의와 성과를 접하게 됩니다. 비록 시골에서 목수의 아내로 살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가정을 돌보시는 지극한 사랑의 어머니이심을 발견합니다. 성모님께서 가장 멋진 분이시라는 부분은 바로 십자가 상에서 인간적 치욕과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신 모습(요한 19,25-27)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잃는 충격 때문에 제자들과 정부를 원망하고 통곡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과 아픔을 극복하고 아들이 생각한 참 인간의 길, 참 구원의 길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시는 성모님에게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조건은 무엇일까요? 지적 능력, 혈통, 빈부의 차이가 아니라 신뢰와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입니다.

“신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할 수가 없었으므로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유다인의 격언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많이 하느님을 만나고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모님의 마음을 가슴속에 새기고, 멈추지 말고 힘차게 사랑과 평화의 행진을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 안동교구 박재식 토마스 신부 -

주춧돌

제 2 편 은총의 생인 성사와 기도

제6 장 성품성사



예수님께서도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루카 22,19-20).

【설명】

감사를 드리신 다음 : 요한 6,11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주도록 하신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찬을 그분의 희생을 ‘기념’하는 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 ‘기념’은 이스라엘의 파스카 식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주석 성경, 신약, 328). 성체성사와 성품성사는 직결되어 있다. 사제 없이는 성체성사가 있을 수 없으며, 성체성사 없이는 사제의 의미도 없다.

【교회의 가르침】

▶ 성품성사(聖品聖事)란 무엇인가? 성품성사란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도구 역할을 하도록 주교와 신부, 그리고 부제를 성별하여 그리스도의 봉사자로 세우는 성사다. 사제가 없으면, 고해성사도 미사성제도 없다. 신자들의 마지막 임종을 앞두었을 때 병자성사 집전도 사제가 한다. 성품성사로 한 사제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그리고 본당 공동체에서 많은 기도와 희생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제가 착한 목자로서 죽는 그 순간까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 성품성사는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도구 역할을 하도록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 주교와 신부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할 사명과 권한을 그분(그리스도)에게서 부여받는다. 그러나 부제들은 전례와 말씀과 사랑의 봉사로 하느님 백성을 돌보는 힘을 받는다(가톨릭교회교리서, 1581항).

【어록】

▶ 교만한 성직자는 마귀와 같은 축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물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그 성직자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것은 그 깨끗함을 잃지 않고, 그를 거쳐 오는 것은 맑으며, 비옥한 땅에 까지 다다릅니다.……과연 성사의 영적인 힘은 빛과 같아서, 조명을 받을 사람들은 깨끗한 빛을 받으며, 더러운 사람들을 거쳐 오더라도 그 빛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성 아우구스티노).

▶ 남을 깨끗하게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하며,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고, 비추기 위해서는 빛이 되어야 하며, 남을 하느님께 가까이 이끌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느님께 가까이 가야하고, 거룩하게 하고, 인도하고, 지혜롭게 충고하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 (사제는 누구입니까? 그는) 진리의 옹호자이며, 천사들과 함께 일어서고, 대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며, 하늘의 제대에 희생 제물이 오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며, 인간의 면모를 새롭게 하여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저 높은 곳을 위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점을 감히 말하자면, 하느님이 될 것이고 다른 이를 하느님이 되게 할 것입니다(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